‘BDA’걸려 한발짝도 못나가

■6자회담 나흘째

13개월 만에 재개된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21일 현재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회담 쟁점들이 몇가지로 좁혀지면서 향후 해결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BDA(방코델타아시아)내 북한 계좌 동결해제 문제가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자 쟁점이 되고 있으며 핵폐기를 위해 해야할 초기 이행조치도 북한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관련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그러나 북한이 핵폐기를 BDA 문제와 연계해 ‘선(先)BDA 문제 해결’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BDA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BDA=이번 회담의 성과로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백화점식 요구가 BDA 중심으로 압축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 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징

북핵 6자회담 나흘째인 21일 오후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과 미국 측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 베이징의 댜오위타이 경내를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北, 先 금융해결 고수 회담 쟁점으로 부상

표로 BDA 금융제재를 규정하면서 계속 ‘BDA 문제 해결’에 천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북한이 핵폐기 이행조치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에 대해 아직 속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BDA문제만 해결되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의 관측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BDA를 ‘사실상’ 6자회담 이슈로 굳힌 소득이 있었고 나머지 회담 참가국들은 BDA 문제를 넘어서면 본격적인 핵폐기 이행조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됐다는 것이 현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그런 판단 하에 미국 등 각국 대표들은 북한이 ‘BDA’ 노래를 부르는 와중에도 북한을 상대로 이행 조치의 내용과 이행시 받을 수 있는 ‘당근’을 계속 거론하며 설득했던 것이다.

◇초기 이행조치=20일까지 북한이 BDA 해결에 천착함에 따라 초기 핵폐기 이행조치 및 상응조치를 협의하는 ‘본라운드’는 진척이 늦어졌다.

때문에 이번 회기 안에 실질적 이행조치 내용에 합의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21일 현재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지만 막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북한은 BDA 문제 해결을 전제로 걸고 있긴 하지만 초기 이행조치로서 영변 5MW원자로를 동결하고 동결 확인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할 뜻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적다.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한과 나머지 국가들의 견해 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원자로 동결 및 사찰수용의 대가로 대체 에너지 제공은 물론 9·19 공동성명에서 ‘적절한 시기에 제공을 논의할 수 있다’로 정리된 경수로 제공에 대한 명시적 약속까지 바라고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베이징=연합뉴스

“김위원장과 정상회담 합의”

정동영 前의장 “작년 8·15행사때 개최 협의” 공개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작년 8월 ‘8.15 민족대축전’ 행사 때 북한 대표단과 정상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했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 전 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연합뉴스, 프랑스 ‘M6’ TV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대남정책 실무사령탑인 림동옥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과의 정상회담 협의사실을 공개했다.

정 전 의장은 “작년 6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을 때 2차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며 “이는 2000년 6.15 공동성명 때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던 합의내용을 수정해서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성사된 합의내용은 적절한 시기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로 변경하고 정상회담 장소를 서울이 아니라 김 위원장이 선택하는 제3의 장소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임 부부장을 통해 알려준다는 내용이었다는 설명이다.

정 전 의장은 “작년 8월 민족대축전 협상 당시 남한은 6자회담과 병행해 정상회담을 추동하자고 제안했고 북측은 정세를 좀 더 지켜보자고 해서 회담이 연기됐다”며 “이후 6자회담이 9.19 공동성명으로 잘 타결돼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했지만, 갑자기 9.19 이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상회담이 표류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뒤늦게 협상사실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정상회담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라면서 “내년에 대선이 있어 정상회담이 불가하다는 말도 있지만 여야 뒷받침 속에 투명하게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셰익스피어 작품 읽으면 두뇌 활동 극적 흥분 효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는 것은 두뇌 활동에 극적인 흥분 효과를 가져온다고 더 타임스지가 학자들의 연구를 인용 20일 보도했다.

필립 데이비스 교수 등 리버풀대학 연구진은 혁신적인 언어 구사가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셰익스피어와 초서, 워즈워스 등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 가운데 특정 부분을 읽은 사람들의 두뇌활동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두뇌 촬영으로 확인했다.

연구진은 명사를 동사로 사용하는 등 셰익스피어가 즐겨 사용한 언어의 ‘기능전환’ 기법을 시험해 본 결과 이를 접한 사람의 두뇌가 마치 “조각그림 맞추기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비극 ‘코리올라누스’에서 명사로만 쓰이던 ‘god’란 단어가 ‘신처럼 섬긴다’는 동사로 바뀌는 “he godded me”라는 대사가 나올 때 독자의 두뇌활동이 갑자기 고조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시험대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

임동욱
서울취재팀장

오늘 내려질 한화갑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할 경우, 한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표직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누가 민주당을 이끌 것이냐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우선 떠오르는 대안으로는 장상 공동대표가 있다. 그러나 장상 대표가 한 대표의 빈 자리를 메우고 원내외를 아우르면서 정계개편의 격랑을 헤쳐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 대표는 원외보다는 원내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가운데 한 대표의 공백을 메울 정도의 정치적 역량을 갖춘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반적인 평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한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표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선의적 관점에서 보면 당권 경쟁 및 정계개편 진로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을 막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 만한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원외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한 당 내외 인사들은 현역 의원들이 비대위 구성을 통해 자신들 뜻대로 민주당을 움직이려는 일종의 ‘과두체제’를 만들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내 일부 강경파들은 친 고건파 의원들이 정계개편 과정에서 민주당 비대위를 매개로 자신들의 몸값 띄우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니정당의 한계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7대 총선 이후, 각종 당 내외 현안들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며 원외 인사 등을 아우르는 폭 넓은 정치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시대정신을 견인할 수 있는 뚜렷한 비전 제시 없이 ‘중도 보수’만을 외치며 눈치보기식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새겨들어야 한다.

격랑의 정치바다에서 민주당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는 민주당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력과 지도력을 기대해본다.

/ tuim@kwangju.co.kr